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12월 3일(금)  
(윤력 10월 29일)  
Пятница  
3 декабря 2021г.  
№ 46 (1196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에트노스>학교 30주년 기념

지난 26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옥차브리> 영화 상연관에서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공연이 펼쳐졌다. 이 학교의 특징은 러시아 민속 음악, 노래, 춤과 한민족 문화예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30년 동안 학교가 많은 인정을 받았고, 학생들은 국제 및 전국, 지역의 다양한 경연대회에서 우승과 수상을 해왔다. 무엇보다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어린이도 많고, 학부모들 가운데서 이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호흡을 맞춰 항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번에 거행된 멋진 무대가 이걸 잘 증명했다. 한인 여학생과 러시아인 남학생의 우정의 스토리로 꾸며진 화려한 무대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학교 측에서 코로나19 현황으로 공연 장소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지 못했지만 공연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었다. 새고려신문 마감날 유튜브 링크를 통해 조회 수는 5150명 이상이었다.

(본사기자)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  
홍보실 제공)

## 사할린주, 연말까지 3개의 학교 신축 준공

연말까지 사할린과 쿠릴 열도 지역에 학생 2100명을 수용할 3개의 학교를 신축 준공할 예정이라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지난 30일(화)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민들과 대화에서 밝혔다. 마카로브에는 800명을 수용할 학교를 올해 말까지 준공하고, 이투루프 섬의 레이도워 마을에는 132명을 수용할 교육시설, 티몹스코에 구역 키롭스코에 마을에는 295명을 수용할 학교-유치원이 신축된다.

사할린 지역에서 학교와 유치원 신축 사업은 계속되며, 그중 2022년 12월에는 노글리키에 학생 300명이 공부할 신축 학교가 운영된다. 같은 해 유즈노-쿠릴스크에도 학교를 신축할 예정인 가운데 부지 선정과 견적을 작성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주지사와 주민들과의 대화 기간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은 도시 남부에 교육시설이 부족함을 호소했다.

"언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남부에 새로운 학교와 유치원 건축을

시작하는가? 남부에는 도시가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다. 이곳에 자녀들을 둔 젊은 가정들이 살고 있어도 학교나 유치원이 건설되고 있지 않다. 학부모들은 시내 중심으로 자녀들을 통학시킴으로 해서 도로에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시민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주지사는 "시 남부 지역을 위한 교육 지구 건설 계획이 설계되었다. 그곳에 학생 1200명을 수용할 학교와 유아 300명을 수용할 유치원, 예술학교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 시설들은 민간 자금을 유치해 건축할 예정이며 2025년에 완공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주민들과 대화에서 종합 체육 시설 건설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 가운데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지역에는 종합 체육시설 건설이 확정되어 2022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토마리 지역 일린스코에 마을에 현대적인 종합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주지사가 밝혔다.

## 사할린주 선거위원회 새로 구성

사할린주에서 새로운 선거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이 위원회는 주로 사할린주의 모든 선거 캠페인을 주관하며, 연방 선거의 사할린주 담당 기관이다. 역동적인 사할린주를 위해 선거위원회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내년에는 사할린 주두마 의원 선거와 2024년에는 사할린주지사 선거를 치러야 하고, 2024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016년에 구성된 사할린주 선거위원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 역할을 다해왔다.

팬데믹, 소득의 감소, 반대 분위기의 고조, 인근 지방에서 선거 취소 등, 그럼에도 사할린 선거위원회는 별도의 위반이나, 치열한 경합, 선거 결과 번복 없이 전 러시아 새로운 헌법 규정과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주두마와 주지사 선거를 무난히 추진해왔다. 현 선거위원

회 구성원의 임기가 올 12월 말로 종료된다.

선거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며, 선거위원회 후보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회 및 정치 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현행 규정에 따라 주두마와 주지사로부터 각각 7명씩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주 사할린 주두마가 선거위원 7명을 승인했고, 주초에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추천된 7명을 승인했다. 새로 구성된 선거위원회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위원회가 추천한 빅토리아 체르카소와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그 직무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위원회의 새 위원 중에는 '노비에 류지(새로운 국민)'정당의 신 안드레이가 있다.

주두마와 주지사의 결정으로 새로 구성된 선거위원회의 임기는 2026년까지다.

## 검진 이동 차량에서 에이즈 검진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2021년 6월 30일 러시아에는 152만8,356명의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이즈 유발) 감염 환자가 등록되었고, 이 중 40만5,477명이 사망했다. 사할린 지역에서는 1993년부터 에이즈 감염바이러스가 등록돼 올해 11월 1일 기준 에이즈 감염자는 2천240명으로 드러났고, 2021년 10개월 동안 사할린 지역에서는 신규 에이즈 감염자로 148명이 등록되었다. 감염 수치는 인구 10만 명당 30.3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올해 에이즈 감염바이러스 발생 사례가 더 많은 지역은 유즈노사할린스크, 흠스크, 코르사코브, 오하, 네웰스크, 아니와 지역이다. 사할린 주민 96%가 사할린 지역에서 에이즈에 감염됐다. 한 해 동안 사할린주에서 여성 744명이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고, 에이즈 양성인 여성에게서 175명의 아이가 출생했으며 그중 아이 3명이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할린주에서 조사 시기에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는 110명이었으며 사망에 이른 치명적 요인은 결핵이었다.

현재 공중보건 조사로 전염병 전담 의사에게 1천433명의 에이즈 환자가 등록돼 있다.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들은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하므로 코로나19 백신 필수 접종 대상이다.

새고려신문

## 2022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557루블리 0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사할린 동포에 관한 활동 지속적으로 할 계획

## 지구촌동포연대 최상구 사무국장과 인터뷰



- 사할린동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한국에 언론인 연수로 잠깐 나간 **배순신** 기자는 사할린 동포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KIN(지구촌동포연대)단체의 **최상구** 사무국장과 만나 인터뷰를 부탁했다.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거의 2년 뵙지 못했고 화면을 통해 뵙 수가 있었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니 무척 반갑네요. 만나기 직전에 안산 고향마을 사할린동포노인회 사무실을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할린에 계신 동포분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전에 오산, 화성 향남을 거쳐 안산 고향마을에 달려(해마다 여러 사람, 단체, 기관들의 후원금으로 사할린 동포들을 위해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을 제작- **기자주**)을 전해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할린에 못가서 그 비용으로 한국에 영주귀국하신 동포분들에게도 달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달력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에 계신 영주귀국 동포 회장님들과 통화하고 먼 지역은 택배 발송을 했고, 경기, 서울, 인천은 직접 찾아 뵙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직접 뵙고 전하면서 동포분들 현황을 알게 되어 좋은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 **킨에서 보통 연초에 <세상에 하나 뿐인 달력> 전달로 사할린을 찾으셨는데 2022년 초에**

**그런 기획이 있으신지요?**

작년 1월 사할린 갔다 들어오고 며칠 안돼 한국도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매년 1월에 갔었는데 올해는 못 갔습니다. 고작 한 번 안 갔는데, 사할린에 갔던 게 굉장히 오래전인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사할린에 다녀오는데 항공편, 자가격리 등 조건은 좋아보입니다. 그러나 감염병인 만큼 과거 방문단이 다녔던 것처럼 사할린 여러 곳을 다니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에 계시는 고령의 동포분들을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출입국 정책이 매달 바뀌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게 된다면 다른 일정을 짜서 방문하게 될 거 같습니다.

- **지구촌동포연대에서 사할린동포 관련 문제를 이미 17년 이상 다루고 있는데 우리 동포와 지속적으로 함께 호흡을 하는 한국 단체는 킨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단체에서 사할린한인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사할린동포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달력을 제작하면서 온라인 모금을 하는 것도 일종의 캠페인이죠. 그리고 언론에서 사할린동포를 다룰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활동을 합니다. YTN특집 "끝나지 않은 이별, 사할린"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올해는 사할린 월례포럼을 개최하여 최

근의 사할린 연구성과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사할린 하면 강제동원만 생각하는데, 그 이전인 1920~30년대 사할린으로의 조선인 이주과정, 소련의 점령과 사할린 한인에 대한 정책 등을 살펴보고, 11월에는 <마카로프 한인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북방의 얼->의 저자 비시넵스키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카로프 지역에서 한인들의 구체적인 삶들을 알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할린 동포들의 권익을 위하여 사할린 한인협회와 재외동포에 관심있는 변호사 그룹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들을 생생히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 **킨에서 사할린한인문제 외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요즘 추진하시는 기획들이 궁금합니다.**

- 사실 1인 활동가 단체나 마찬가지로 마친 가지인 상황에서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킨이 마무리해야 할 일들도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일본 교토부 우지시에 있는 우도로 마을 살리기 운동입니다. 과거 군비행장 건설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합숙소가 마을의 시초인 곳인데요, 재일동포들만 모여 살던 곳으로 경제대국 일본에서 80년대까지 상하수도도 없었던 곳입니다. 식민통치의 결과이지만 책임지지 않았던

일본 정부와 그 동안 방치했던 한국 정부 모두의 책임이 있던 곳입니다. 현재는 마을이 위기를 넘기고 현지에 우도로 평화기념관을 짓고 있습니다. 기념관 건물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전시계획 등을 마련하여 내년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평화기념관 건립은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앞으로 기획도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 사할린 한인들의 역사를 정확히 밝히는 작업도 놓칠 수 없는데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사할린 한인 학살사건에 대한 재조사 민원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2019년 KBS 다큐를 통하여 미즈호 사건이나 카미시카 사건에 대해 과거 한국 정부의 보고서 결론과 다른 주장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위원회에서 진상규명하여 정확한 역사를 정리해야 합니다.

얼마전 MBC PD수첩을 통해 재일동포에 대한 국정원의 공작사건이 폭로되었는데요, 여전히 동포들이 체제를 위한 희생양이 되는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환의 권리를 빼앗겼던 많은 동포들이 한반도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한국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한데요, 이에 대한 활동 역시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합니다.

특별법(사할린동포법)의 시행으로 올해 첫 영주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재외동포의 귀환을 법으로 규정한 큰 의의가 있는 법안입니다. 물론 사할린동포 다수가 만족스러운 내용은 아닙니다. 시행령 또는 법개정을 위해 동포 여러분의 목소리들을 스스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법을 근거로 사할린 동포에 대한 기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동포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존하고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과 기록물, 가족 간에 전해진 이야기들을 찾아서 정리하고 보관한다면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하나의 모자이크처럼 모여서 사할린 한인의 역사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스스로 준비하고 계신다면 풍부한 역사기념사업을 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 **사할린동포를 위해 활동도 많이 하시고 애써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구촌동포연대가 추진하는 모든 기획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 이 모 저 모

### 사할린 주민들, 박물관 축제에 초대

11월30일(화) 대규모 문화행사인 제 4회 '21세기의 박물관' 지역 축제가 시작되었다. 이 행사는 사할린주 박물관 사업 125주년을 맞아 6일간 진행되는 가운데 축제 행사에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주립 박물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박물관들에서 100여 명 이상이 참가한다. 12월 1일(수)~5일(일)까지 진행되는 축제 기간에 사할린 주민과 방문객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모든 박물관 관람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옛것 탐색' 퀴즈대회에 참가할 수도 있으며, 유즈노사할린스크 4개 박물관의 전람회들에서 60개(박물관마다 15개)의 큐알 코드(QR-code)를 찾아 링크로 들어가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다. 답안 작성 후에는 박물관 대표소에 제출하면 되고, 퀴즈대회 우승자 시상식은 12월 6일(월) 15시 체호브 극장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 이뤄진다.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박물관 관장이자 축제 기획 주최 및 주관자인 예브게니야 피르소와는 "축제는 박물관 전문가들을 위한 특별한 날입니다. 며칠간 참가자들은 경험을 공유하고, 박물관 세미나와 원탁회의에 참석하고, 기획과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전문가와 사립 및 학교 박물관 지도자들을 위한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현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툴라주의 박물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축제 프로그램에 제일 먼저 자질 향상을 위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전례대로 '박물관 기획' 공모전이 진행된 가운데 이미 30개 기획안이 접수되어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 지방 및 학교 박물관이 선정된다. 심사위원으로는 하바롭스크의 니콜라이 이와노비치 그로제코브 향토 박물관의 부관장, 하바롭스크 박

물관 연합회 회장, 역사학자 니나 마르코와이다. 박물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후에는 '문화' 국가기획의 '아르테팩트(유물)'와 관련된 작업에 따른 방법론적 수업을 진행한다.

일부 행사가 시네고르스크, 돌린스크, 네웰스크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축제 참가자들은 박물관들과 알게 되고, 국가 목록에 든 전시품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며, 새로운 사립 박물관의 발표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강조할 만하다.

또한 활동에 따른 만남의 일환으로 <사할린주에서 박물관 사업의 발전, 지역 간 전시 기획> 회의가 열리며 이에 지역 및 러시아 연방 박물관들,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 및 하바롭스크 문화부, 사할린주 박물관 연합회의 지도자들이 참석한다.

축제 활동의 일환으로 일련의 전시회가 펼쳐지는데 박물관 전시센터(프로스펙트 포베디, 40)에서는 <책 속의 꿈>,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박물관에서 <당신의 소설을 다 읽었다: 미하일 불가코프는 어떻게 유명한 작가가 되었는가>, 주 미술 박물관에서는 <콘테이너. 새로운 작품>, 주 향토 박물관에서 <박물관 기증품. 꽃병> 등 전시회가 열린다.

###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фестиваль музеев

Крупное культурное событие — IV регион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Музеи в XXI веке" — стартовало 30 ноября. Оно приурочено к 125-летию музейного дел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течение шести дней. В мероприятиях фестиваля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более ста участников из областны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и школьных музеев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В дни фестиваля с 1 по 5 декабря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ход во все музе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есплатный. Посетители музеев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викторине "В поисках старины". В экспозициях четырёх областных музее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еобходимо найти 60 QR-кодов (по 15 в каждом музее), перейти по ссылкам и ответить на вопросы. По завершении бланк с ответами оставить в кассах учреждений.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викторины состоится на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фестиваля 6 декабря в 19:00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театральном центре им. А.П. Чехова.

— Фестиваль — это праздник для музей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музея книги А.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инициатор и организатор проекта Евгения Фирсова. —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дней участники будут обмениваться опытом, посещать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семинары и круглые столы, выступать с проектами и докладами. Это огромная площадка для специалистов, руководителей частных и школьных музеев, которые хотят получить новые знания. Для этого мы пригласили не только местных экспертов, но и коллег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Хабаровска, Москв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и Тульской области. Впервые в программу фестиваля включены курсы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Традиционно состоится конкурс "Музейный проект", куда уже подано около 30 заявок. По итогу проведения определят лучший школьный и муниципальный музей. Председателем жюри выступит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евого музея им. Н.И. Гродекова,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музеев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Нина Маркова.

После конкурса для музейщиков пройдёт методическое занятие по работе на платформе "Артефак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Культура".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часть мероприятий пройдет в Синегорске, Долинске и Невельске, где участники фестиваля познакомятся с музеями, узнают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работы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каталогом и увидят презентацию нового частного музея.

В рамках деловой встречи пройдёт совещание "Развитие музейного дел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ежрегиональные выставочные проекты". В нём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руковод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ых, федеральных музеев РФ,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Ассоциация музее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работы фестиваля откроется несколько выставок: "Мишка в книжке" в Музейно-выставочном центре (проспект Победы, 24), "'Ваш роман прочитали': как Михаил Булгаков стал знаменитым писателем" в музее книги А.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Контейнер. Новая коллекция" в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Подарки музею. Вазы" в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7면에 계속)

# 대구 청년들의 마음을 전하고자 6번째 <사할린의 밤>을 개최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 어느덧 사할린의 밤 행사가 여섯 차례가 되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사할린의 밤은 대구에서 그 막이 올랐다.

남양주, 안산, 김해, 양산. 각각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하신 어르신들을 싣고 내달린 버스가 하나 둘 행사장으로 집결했다. 아침부터 서둘러 피곤하셨을 몸으로 도착한 대구.

어르신들 몇몇은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버스를 기다리며, 행사장 건물 밖에서 왔다 갔다 서성이기를 반복하고, 이내 도착한 버스에서 내리는 친구들을 맞이했다.

오랜만에 만난 사할린 친구들을 보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하고, 손도 잡아보고 입가에는 어느새 웃음꽃이 한 가득 피었다.

한 걸음 한 걸음 행사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오늘 사할린의 밤 행사에 대한 기대와 함께 2층으로 가는 계단을 훌쩍 뛰어 오를 듯했다.

각자 코로나 방역 탓에 크게 웃음짓지도, 소리치지도 못했지만 행사 시작 전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어르신들의 답소를 나누는 소리로 장내는 훈훈함마저 감돌았다.

이어 시작된 행사에서 각 시 협의회별 회장님들의 축사는 "한 번 두 번으로 끊어질 줄만 알았던 대구 청년들의 호의가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도 계속 되고 있다. 오늘 이렇게 다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하태군 회장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등 연신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준 민족통일대구청년협의회(회장 하태군)에 거듭되는 감사의 말들로 가득했다.

이번 행사장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진행되었지만 평양민속예술단의 흥겨운 공연에서는 감추지 못한 흥으로 인해 홀로 나서 춤사위를 펼치신 어르신 이 눈길을 끌었다.

"이런 흥겨운 음악과 기쁜 자리에서 어찌 어깨춤이 나오



지 않겠는가?"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나를 자주 방문했던 사할린도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 사할린의 건물도, 도로도, 한민회의 모습도, 새고려신문사의 모습도 눈에 선한데 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며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꼭 어르신들을 한 데 모셔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대구 청년들의 마음을 전하자."고 생각했다는 하태군 청년회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사할린 어르신들을 챙기는 것이 청년들의 소명이다."라며 계속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사할린동포들의 영주귀국에 대한 정부의 방침도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점차 개선이 되겠지만, 앞으로 코로나의 종식으로 다시 찾을 사할린에서 열리는 '대구의 밤'을 기대하며 어르신들을 또 한 번 마음에 담아 보내드린다.

(만수요양원 대표 황태웅)

(사진: 민족통일대구청년협의회 제공)

# 2021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 개최

2021.12.1.(수)-9(목)<8박 9일>, 중국 및 러시아CIS지역 동포 언론인 참여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재외동포 언론인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를 오는 12월 1일(수)부터 9일(목)까지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는 중국과 러시아-CIS지역의 고려인 신문, 새고려신문, 길림신문사, 해란강타콤 등 민족언론사 출신의 재외동포 언론인이 참석하며,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디지털 저널리즘, 뉴미디어, 기사 작성법, SNS 활용법 등 언론 관련 강의와 국내외 경제, 사회, 외교, 대북정책 관련 강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더불어, 일정 중에 연수 참가자들은 모국 역사문화 체험과 전세계 재외동포 언론인과 소통하는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하며, 국내 언론사인 연합뉴스와 YTN을 방문하여 시설을 견학하고, 모국으로 재정착한 고려인 동포들의 생활 모습을 탐방하기 위해 광주 고려인 마을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고려인 마을에서는 현지 고려인들과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를 담가 고려인 마을에 기부하는 뜻깊은 활동을 할 예정이다.

김성곤 이사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전세계 재외동포 언론 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민족의 얼을 지키고 동포사회 소식을 전하는 재외동포 언론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연수를 통해서 언론인으로서 전문 지식을 함양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는 2015년도부터 재중동포 언론



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러시아-CIS지역 재외동포 언론인도 참여하는 등 확대 시행되었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 [신PD의 K 리포트]

### 말의 무게



방송국을 흔히 '말 공장(工場)'이라고 합니다. 라디오는 말할 것도 없고 TV도 사람의 언어를 프로그램 제작의 주요 매개체로 하고 있으니 그렇게 불러왔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말이 많은 곳'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 많은 곳'이 어디 방송국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조직을 이루어 일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말이 많고 또 그 말들로 인해 사람 사이의 갈등과 오해가 생겨나기 마련이겠지요.

'말 공장(工場)' 공원(工員)의 한사람인 저 역시 올 한해 많은 말들을 쏟아내며 지냈습니다. 저의 말들이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기도 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줘서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에 문득 '내가 해온 말들을 계량할 수 있다면 어떤 기준이 적합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피, 넓이, 길이, 무게 등등 중에서 고른다면 말이죠. 만일 부피를 기준한다면 입을 통해 공기로 나온 말들을 하나하나 그릇에 담아 그 용적(容積)으로 잴 수 있을 겁니다. 길이로 잴다면, 말들을 종이에 쪽 적어서 늘어놓고 자를 대어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가벼운 입놀림', '경솔(輕率)한 말버릇', '진중(鎭重)한 말투', '입이 무겁다'에서처럼, '가볍다[輕]거나 '무겁다[重]'라는 표현들이 앞뒤에 붙는 것으로 봐서 말은 '무게'를 측량 단위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말이 새털처럼 너무 가벼워서 중력으로 누르지 못하고 이리저리 날아 다니게 놔두면, 기쁨을 주기 보다는 누군가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남을 헐뜯는 말, 뒤에서 하는 헐뜯음은 특히나 그 가벼움으로 인해서 더 쉽게 주변 구석구석을 떠돌며 공동체의 건강성을 위협하게 됩니다. 맥락이 잘려서 그 원래 가졌던 전체 의미가 곡해되거나 구부러져 오해와 불신을 만들어내는 일도 드물지 않고요. 그래서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말에 목지함을 실어서 함부로 떠돌아다니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제안은 '글 쓰듯이 말하자'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말하는 것과 달리, 일정 시간 생각의 숙성 과정을 거친 후 그 여물어진 글자들이 손가락을 움직여야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글은 즉흥성이 덜하고, 또 그렇게 묵혀진 만큼 무게를 얹게 돼 쉽게 이리저리 방향 없이 떠돌지 않게 됩니다. 물론, 깊이 고민하고 적어내린 글들이 말보다 더 폭력적이거나 가학성을 띠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툭툭 내뱉은 말들이나 뒤에서 속닥속닥 헐뜯는 가벼운 말들이 주는 해악의 빈번함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글을 쓰듯 말하자'고 제안하는 김에, 이왕이면 좋은 글쓰기 교본을 놓고 그 규범을 지켜가며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곁에 두고 수시로 열어보는 책 중에 이태준 선생님의 <문장강화>가 있는데, 그 목차의 일부만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행어, 경어와 문장, 운문과 산문, 퇴고의 이론과 실제, 글머리, 끝맺음, 대상과 표현, 문체...'

'말을 할 때에 이런 문법들을 지키라고? 말도 안되는...네, 저의 이런 제안을 진심으로 여기시는 동포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말의 가벼움으로 생기는 오해, 갈등, 사회 혼란을 경계하고자 다소 과장되게 빚대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의 해악을 줄이기 위해 <문장 강화>를 교본으로 삼아 한마디 한마디를 글 쓰듯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돼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포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서 접하시는 <새고려신문> 첫 면의 글귀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내 허끝을 출발해 공중으로 날뻐지는 수많은 말들의 가벼움을 이겨낼 수 없다면, 그래서 의도치 않게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에 해가 될까봐 두렵다면, 우리에게 세 가지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문장강화>를 옆에 두고 글 쓰듯이 말하거나,

'서로 칭찬하기'를 실천하거나,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신원섭

KBS라디오 편성기획국장/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객원교수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Медиафорум этнически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СМИ

Москва, 30 ноября — ИА РУСКОР

Пятый, юбилейный Медиафорум этнически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СМИ прошел в столице 29 ноября, сообщил ruzassent.ru.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Москвы и Гильдией межэтнической журналистики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овета по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м отношениям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Ф и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России, собрало на своей площадке 18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МИ, НКО 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з 54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Общее число участников, с учетом тех, кто подключился к видеотрансляции форума, превысило 500 человек из всех субъектов РФ. Активно задавали вопросы участники с Сахалина,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для них Медиафорум начался в 19 часов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По словам руководителя Департамен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и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связей города Москвы Виталия Сучкова, с каждым годом в Медиафоруме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все больше журналист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Ни один из предыдущих Медиафорумов не прошел бесследно — по итогам каждого из них были приняты важные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впоследствии воплотились в реальные проекты. В этот раз к нам подключились почти все регионы страны, и, уверен, практические результаты продуктивной работы участников не заставят себя ждать. Тот опыт, который будет сегодня нарабатан, возьмут на вооружение и власти Москвы, и другие субъекты РФ», — заявил Виталий Сучков.

Активную дискуссию в рамках Медиафорума вызвала тема освещения миграционных проблем в медиа и в частности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запрете упоминания в СМИ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и вероисповедания лиц, причастных к преступлениям.

Участники сошлись во мнении, что СМИ, поднимая тему миграционных вопросов, должны более адекватно понимать проблематику и освещать данную сферу максимально непредвзято, не искажая реальную ситуацию. Этническим сообществам нужно больший акцент делать на своих традициях и культуре и активнее работать с негативным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ми поводами, в том числе внутри своих общин. Что каса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нститутов, им стоит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недостаток юридической терминологии и определений в сфере миграции и вопросов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а также на отсутствие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и госструктур, которые бы занимались адаптацией мигрантов.

«По итогам V Медиафорума этнически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СМИ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сформировать на базе Школы межэтнической журналистики новую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которая расскажет о правилах объективного освещения миграционных проблем в средствах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Также предложено в начале 2022 года собрать круглый стол по данной теме с участ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едущих СМИ, профи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 и этнических сообществ.

Кроме того,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выразили намерение оказать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поддержку развитию этнического туризма и использованию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лорита для создания уникаль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объектов. Для этого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ть платформу, которая объединит успешные кейсы этнобрендинга территорий, будет содержать подробные описания реализованных концепций и пошаговые инструкции к ним и позволит адаптировать готовые решения с учетом мест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30-летие "Этноса" отпраздновали концерто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ольшой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посвященный 30-летию юбилею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прошел на сцене ККЗ "Октябр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Лейтмотивом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шоу стала история двух детей из разных культур с отличающимися традициями, зародившаяся дружба которых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для мечты и творчества не существует барьеров и границ. Это трогательное повествование перекликается с философией самой школы, объединяющей наше культурное разнообразие, открывающей широ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знакомства с многогранным, самобытным и ярким искусством народов.

Насыщенную концертную программу открыл оркестр народ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с первых нот погрузив зрительский зал в атмосферу волшебства произведением "Фантазия", созданным по мотивам известного мультипликационного фильма "Аладдин".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мероприятия яркие и запоминающиеся вокальные, музыкальные,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е номера сменяли друг друга, завораживая каруселью традиционных рус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стюмов, сочетанием стилей и колоритом народных традиций.

— 30 лет — колоссальная дата. Готовясь к этому юбилею, решили обратиться к режиссерской группе — хотелось сделать концерт особенным, запоминающимся. В этом году мы попробовали объединить современность и фольклор,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ДШИ "Этнос" Анна Ворохова.

Напомним, детская школа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основана в 1991 году как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ая площадк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 1995 году на базе школы открылось отдел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С момента создания школа достигла немалых высот. Ее учащиеся и учебно-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ежегодно участвуют в более чем 150 концертных и конкурс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разного уровня, становятся лауреатами и призерами престижных всероссий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курсов и фестивалей.

Сегодня в "Этносе" на бюджетной основе обучаются 335 ребят, на внебюджетной — 42, функционируют два отделения — русского фольклора и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реализую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и общеразвивающие программы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музыкальный фольклор, корейское национ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общее музык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е творчество, музыкальное творчество, раннее эсте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штате школы работает 74 сотрудника, в том числе 45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69%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 концертмейстеров имеют первую и высшую квалификационные категории.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коллектив

обладает высоким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ом и большим творческим потенциалом, что проявляется не только в обеспечени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но и в высоких концертно-конкурсных достижениях учеников, личны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и творческих достижениях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 концертмейстеров.

Как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культуры и туризма Ирина Герасимова, ежегодно школе из бюджетов всех уровней, в том числе и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Культура", выделяются средства на обновление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Так, при поддержке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приобретаются сценические костюмы для юных артистов, музыкаль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а также финансируются выезды коллективов школы за предел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общает мэрия города.

## Найдены неизвестны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убийства 126-летней давности

Токио, 28 ноября — ИА РУСКОР

Недавно обнаруженное письмо проливает новый свет на убийство корейской императрицы Менсон (Myeongseong) японцами в 1895 году.

Письмо,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отправленное другу детства японским дипломатом, причастным к убийству, было найдено в Японии.

По сообщению газеты «Асахи Симбун», недавно было найден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восемь писем, написанных Кумаичи Хоригучи, консульским помощником японск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в Сеуле в то время.

Хоригучи входил в банду убийц, состоявшую из солдат, дипломатов и гражданских лиц, которые рано утром 8 октября 1895 года совершили налет на дворец Кенбок и убили императрицу Менсон

Хоригучи был просто отстранен от работы на год сразу после инцидента.

Восемь писем были отправлены его другу детства Тейсе Такеши в период с 17 ноября 1894 года по 17 октября 1895 года. Они включают письмо, датированное 9 октября 1895 года,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после убийства, единственное,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печатано двойной печатью и подробно описывает инцидент, сообщает газета.

«Я возглавлял налет. Мы убили королеву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ерелезли через стену... и с трудом добрались до ее спальни», — пишет Хоригучи. «Я был очень удивлен, так как обнаружил, что это оказалось проще, чем я думал».

Письма были найдены 77-летним Стивом Хасегавой, американцем япон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живущим в Нагое, на блошином рынке.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Мун Чжэ Ин: Дальнейшего ослабления правил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не будет

В связи с ростом числа новых случаев COVID-19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екратит дальнейшее ослабление правил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Вместо этого ускорится проведение ревакцинации и создание новых больничных коек.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ыступая 29 ноября на совещании по мерам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пандемию COVID-19. При этом он чётко дал понять, что первый этап постепенного возвращения к обычной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продолжится. «Больничных коек не хватает, так как количество пациентов в тяжёлом и критическом состоянии растёт. Тем не менее, мы не можем вернуться в прошлое, отказавшись от постепенного возвращения к обычной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 сказа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 конце октября, до смягчения некоторых правил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число новых случаев инфекции составляло около двух тысяч, но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оно увеличилось до четырёх тысяч. Ближайшие четыре недели объявлены периодом «особых мер сдерживания». Мун Чжэ Ин призвал орган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е допустить проникновения в страну варианта коронавируса Омикрон.

## За 100 дней до выборов в президентской гонке нет явного лидера

За 100 дней до очередных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которые назначены на 9 марта будущего года,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по поводу того, кто должен стать следующим президентом страны, остаётся неопределённым. Явным лидером нельзя назвать ни одного из четырёх основных кандидатов. Это Ли Чжэ Мён от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Юн Сок Ёль от основно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Ан Чхоль Су от Народной партии и Сим Сан Чжон от парти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Согласно последнему опросу KBS, 23% респондентов затруднились с ответом. Кандидаты от двух основных партий, Ли Чжэ Мён и Юн Сок Ёль, связаны с коррупционными скандалами.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требует проведения специальных расследований с участием независимых юристов.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между правящей партией и оппозицией будет только накаляться. Кроме того, Ли Чжэ Мён, похоже, не собирается следовать мнению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а, наоборот, старается навязать ей соб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В минувшие выходные дни он побывал в городе Кванчжу. Юн Сок Ёль отправляется в трёхдневную поездку по провинциям Чхунчондо, где попытается привлечь на свою сторону избирателей, разочарованных политикой действующего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и будет обещать добиться изменений в стране. По его мнению, политика нынешнего президента усугубила раскол между гражданами страны и показала неспособность оживить экономику. Сим Сан Чжон и Ан Чхоль Су обсуж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выдвижения единого кандидата от оппозиции, но пока не достигли успеха.

## В Инчхоне прошл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морскому праву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рибунал по морскому праву (ITLOS),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органом ООН, провели 30 ноября и 1 декабря в Инчхоне Шестую международную конференцию по морскому праву. Она прошла в режимах онлайн и офлайн. С основными докладами выступили президент ITLOS Альберт Хоффманн и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по многосторонним и глоб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Хам Сан Ук. Конференция посвящена тому, как установить правовую основу для регулирования океан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и е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овыми морски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и изменением исходных условий или юрисдикционных зон, затронутых глобальным потеплением, - сообщили в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м ведомстве.

## Группа BTS номинирована на премию «Грэмми» 2022 год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бойз-группа BTS номинирована на премию «Грэмми»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ее выступление поп-дуэта/группы» с хитом Butter. Об этом 23 ноября объявила Академия звукозапис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южнокорейская группа получила свою первую номинацию на «Грэмми» с песней Dynamite. На этот раз соперниками BTS в борьбе за награду стали Тони Беннетт и Леди Гага с песней I Get a Kick Out of You, Джастин Бибер и Бенни Blanco с песней Lonely, Coldplay с песней Higher Power, Doja Cat и SZA с песней Kiss Me More. Песня Butter, вышедшая в мае этого года, удержива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чарте Billboard Hot 100 в течение 10 недель подряд. По данным Billboard, это «самая долгоиграющая песня 2021 года» в чарте. Затем группа занима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чарте с песнями Permission to Dance и My Universe, совместный сингл с британской рок-группой Coldplay. Номинация на «Грэмми» была получена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после того, как южнокорейская группа получила три награды American Music Awards (AMA), включая высшую награду в категории «Артист года». Если BTS получит премию «Грэмми», она станет первым исполнителем К-поп, удостоенным всех трёх основных музыкальных наград США, включая American Music Awards и Billboard Music Awards. Лауреаты 64-й премии «Грэмми» будут объявлены 31 января в Лос-Анджелесе после финального тура голосования, который пройдёт с 6 декабря по 5 января. (RKI)

## Дуайеном иностранного дипкорпуса в КНДР стал посол РФ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29 ноября территорию КНДР покинул посол Палестины, приостановив тем самым полность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алестинской дипмиссии в Пхеньяне. Обязанности дуайена иностранного корпуса в Пхеньяне перешли к послу России Александру Мацегора.

Об этом, на условиях аноним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е" сообщил источник, хорошо информированный о ситуации.

По словам источника, посол Палестины Исмаил Ахмед Мохаммед Хасан 29 ноября через погранпереход Синийджу-Даньдун пересе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китайскую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границу, покинув территорию КНДР. Вместе с послом выехали его супруга и дочь. "Палестинская дипмиссия в Пхеньян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лностью приостановила свою работу. Ее руководитель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работал в одиночестве", - добавил источник.

Посол Палестины проработал в КНДР около 12 лет - с 2009 г. С его отъездом обязанности дуайена ино-

странного дипкорпуса в КНДР перешли к послу России Александру Мацегора, который в должности посла находится в КНДР с 2015 г.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 Пхеньяне остались послы шести стран - России, Китая, Кубы, Вьетнама, Сирии и Лаоса. Также продолжают работу поверенные в делах Египта и Монголии. В посольствах Ирана и Камбоджи для присмотра за имуществом и поддержания объектов в рабочем состоянии оставлены по одному техническому работнику. Все остальны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и офисы гуманитар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заморозили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Напомним, что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из Пхеньяна в Россию на поезде выехали 22 человека из посольства РФ - дипломаты, технические работники и члены их семей. В посольстве РФ в КНДР продолжают работать девять дипломатов и более 20 сотрудников из состава техниче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Кроме того, с ними находятся 15 членов семей.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 В Сеуле открыл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втосалон Seoul Mobility Show 2021

В пригороде Сеула Коян в выставочном комплексе KINTEX начал работу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втосалон Seoul Mobility Show 2021. Официальное открытие состоялось 26 ноября, но журналистам дали возможность заранее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редставленными новинками, включая как автомобили, так и иные транспортные средства.

Безусловно, всемирная пандемия COVID-19 оказала свое влияние на масштаб мероприятия, на которое в этот раз прибыли меньше компаний, чем в "докоронавирусную эпоху", однако сам факт проведения полноценного автосалона можно смело записать в актив южнокорейским организаторам.

Отражая происходящие изменения в подходе к транспортным средствам и самой традиции передвижения, с этого года автосалон поменял свое название, став Seoul Mobility Show - вместо только "автомобилей" появилось более широкое понятие "мобильности, передвижения". Как пояснили накануне открытия Seoul Mobility Show 2021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ы, это отражает новые тенденции в этой сфере, включая появление летающих средств передвижения, роботов, беспилот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и прочее.

В этом году в Seoul Mobility Show 2021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около 100 компан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включая десять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автомобилей из шести стран мира, а также фирмы по выпуску запчастей,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услуг, выпуску топлива и проч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В ходе салона проходит презентация всего 19 новинок автомобилей, включая одну мировую, пять азиатских и 13 корейских. Основной посыл нынешнего автосалона очевиден: мир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более электрическим и автономным, так как над беспилотными моделями сейчас работают все крупнейшие автомобилепроизводители. Как сообщил глава подразделения беспилотн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Hyundai Motor Чан Ун Чжун, уже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на улицах Сеула начнется полноценное тестирование беспилотных моделей концерна. BMW и Mercedes же пообещали, что совсем скоро абсолютно все их автомобили будут доступны как в традиционных, так и электрических версиях.

В целом же, если судить по общей атмосфере ны-



нешнего автосалона, основная ставка теперь делается именно на электромобили. Летающие "авто", а также машины, где можно будет управление полностью доверить автоматике - это еще будущее, но уже очень и очень близкое. Так, в Южной Корее уже с 2025 года собираются внедрять сервис летающих такси, а пробный полет, где "подвезли" по воздуху группу журналистов, был произведен в Сеуле около месяца назад.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втосалон Seoul Mobility Show 2021 продлится десять дней до 5 декабря включительно.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Коян, РФ)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Полигранд"**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е полугодие — 557 руб. 0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пущен новый проект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министерство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проводит обследование малоимущих семей. Главная задача – выявить на что именно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не хватает средств и оказать адресную поддержку. Проект обсудили на рабочем совещани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егиона.

– Первые результаты проведенной работы показали, что не все семьи, которые числятся малоимущими, нуждаются в реальной помощи. А наша ключевая задача – оказать поддержку именно тем, кому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обходимо. Поэтому помощь должна быть адресной. При этом мы намерены привлечь социально ответственный бизнес. К примеру, если семье не хватает средств на продукты, они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кидки в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магазинах, если не хватает на пользование общественным транспортом – для них снизят цену на проезд,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регионе малоимущими числится более 11 тысяч семей. Для них предусмотрены единовременные выплаты в различных ситуациях. В случае получения плат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не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программ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гарантий бесплатного оказания медпомощи, а также на зубопротезирование, малоимущим семьям возмещаются понесенные расходы, но не более 30 тысяч рублей. Выплата до 15 тысяч рублей предусмотрена при выезде на лечение за пределы области по направлению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ри рождении детей семьям с низкими доходами предусмотрена компенсация до 3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коляски и комплекта для новорожденного. Также малоимущим семьям с деть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ежеквартальна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ая помощь. Компенсируются затраты на покупку школьной одежды до 1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в семье. Также до 1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год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теплой одежды, обуви, предметов домашнего обихода, топлива (для проживающих в домах без центрального теплоснабжения). Система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самых эффективных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овые меры за счет адресного подхода призваны усилить эту работу.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с которого начали реализацию пилотного проекта, 938 малоимущих семей. Специалисты минсоцзащиты уже обследовали 52 семьи.

– Полученные в результате обследования и опросов данные показали, что чаще всего средств семьям не хватает на еду, одежду, оплату ЖКХ, транспорт. В сорока процентах случаев на одного члена семьи не хватает от 7 до 10 тысяч рублей до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 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Орлова.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локомотивов в оказании адресной помощи малоимущим семьям станет карта сахалинца. Держатели получа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оциальные скидки на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е/не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е товары в магазинах-партнерах проект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родуктовые наборы (в виде электронного сертификата). Кроме того, это может быть 50-процентная скидка на посещение горнолыжн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для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или бесплатное посещение аквапарка «Аквасити»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Приоритетность той или иной льготы будет определять индивидуально для каждой семьи.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должны завершить в марте 2022 года. Далее – распространят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вой в России получила федеральные средства на новую программу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Федеральный Фонд содействия реформированию ЖКХ поддержал инициативу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 выдели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на реализацию новой программы расселения жилфонда, признанного непригодным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после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перечислить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1,99 млрд рублей на реализацию этапов 2022-2023 годов. Первые средства в размере 667,9 млн рублей уже получены.

Федераль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направить на решение квартирного вопроса в Охинском, Холмском и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ах. Средства пойдут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лья, а также на выплату выкупной стоимости за изымаемые жилые помещения в аварийных домах.

–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отметили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по переселению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из непригодного жилья. Наш регион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в стране завершил программу расселения жилья, признанного аварийным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и приступил к реализации новой. Поручение о ее запуске дал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феде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более 440 человек в Холмске, Углегорске и Охе переедут в комфортные квартиры,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1,99 миллиарда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будут распределены между 7 район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помощью этих средств из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будет расселено более 1600 тысяч человек.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вой из всех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делала следующий шаг в решении задачи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граждан безопасными и комфортными условиями проживания. Досрочное завершение действующей программы переселения позволило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приступить к расселению домов, признанных

аварийными после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 подчеркну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рпорации – Фонда содействия реформированию ЖКХ Константин Цицин.

В 2021-2026 годах ключи от комфортных квартир получат почти 29 тысяч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этом году расселили уже 50 тысяч «квадратов»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Новоселье отметили 2,3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сего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в комфортные квартиры переедут 5,8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Жителей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а обеспечат необходимым числом терапевтов к середине декабря

Вопросы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ы стали одними из ключевых на встреч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жителями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а, которую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ел в рамках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планировочный район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Не могу попасть на прием. Нет талонов, – пожалова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а Анна Васильева.

– На нашем участке постоянно меняются терапевты. Приходится каждый раз заново вводить специалиста в курс, – добавила Ирина Лаврентьева.

По словам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город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 6 Артёма Нагорного, медучреждени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спытывает нехватку терапевтов. Два специалиста ушли в декретный отпуск. Один терапевт решил получить другую медицинскую специальность. Один постоянно задействован в работе на выезде к больным ковидом.

– Здоровь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является для нас приоритетом. Над решением кадрового вопроса во всех медучреждениях мы работаем в круглосуточном режиме. На этой неделе по моему поручению минздрав готови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штатное расписание на базе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откуда специалисты будут направляться, в том числе и в поликлинику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а. К середине декабря вопрос по терапевтам в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будет решен,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его на встрече прозвучало более двух десятков вопросов. Все они взяты в работу.

Так, губернатор поручил оказать немедленную необходимую помощь мужчине, который долгое время не может пройти необходимые обследования, чтобы попасть на операцию на позвоночнике. Также министр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ручили оказать полное содействие женщине, нуждающейся в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ой помощи.

Ряд вопросов на встрече касался газификации планировочного района. По словам министра энергетики области Михаила Гузенко,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 является первоочередным в программе газификации юга острова, 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домовладения здесь перейдут на газ. Несколько жителей попросили более вниматель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состоянию дорог, особенно грунтовых. Ряд вопросов касался темы переселения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фонда и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домов. Весь зал поддержал просьбу жительницы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а к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посодействовать в решении проблемы отсутствия достаточного числа банкоматов в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Глава региона сообщил, что обсудит вопрос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банка.

##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Увольнять людей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прививки недопустимо

Об этом зая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 ходе прямой линии на телеканале «ОТВ-Сахалин» и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Жительница села Чехов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пожаловалась, что ее уволили с работы из-за отказа вакцинироваться.

– Увольнение из-за прививки – это недопустимая ситуация. Необходимо взять координаты человека, разобраться с работодателем и восстановить человека на работе,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множество вопросов коснулось предполагаемого принятия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который сделает обязательным QR-коды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губернатор отметил, что он еще не принят. Сейчас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Думу внесены законопроекты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электронных сертификатов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и на некоторых видах транспорта.

– Я думаю, что регионам доверят самим решать, что и как делать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ы всегда старались идти рациональным путем в вопросах антиковид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И в этом, прежде всего, опирались на сознательность 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наших жителей.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ллективный иммунитет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70 %. Это позволяет нам сохранить привыч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и не вводить ограничений без остр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чтобы не создав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трудности для людей и бизнеса. Но безопасность людей прежде всего. Мы должны сохранить здоровь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это главный приоритет нашей работы,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Еще один вопрос, касающийся вакцинации, поступил по телефону. Пенсионерка поделилась, что сделала прививку 2 ноября и до сих пор не получила обещанную тысячу рублей.

Фонд «Будущее вместе» с 23 октября начал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Пенсионерам, которые впервые вакцинировались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ыплата – 1000 рублей.

Губернатор поблагодарил бизнес за социальную инициативу и попросил ускори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материаль-

ной помощи.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средства будут перечислять в течение 3-5 дней. Вопросы о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можно задать по телефону: 8 (4242) 28-23-45.

## Сахалинские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устраняют нарушения требований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рышах и чердаках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завершились проверки соблюдения требований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рышах и чердаках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Масштабную работу развернул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 За короткий промежуток времен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изошло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пожаров, из-за которых серьезно пострадали люди, они лишились жилья. Мы должны предотвращать возникновение подобных ситуаций. Потому что речь идет о здоровье и благополучии сахалинцев. Необходимо усилить контроль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жилого фонда,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жилищной инспекции области и работник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обследовали более 500 чердаков и крыш, а также изучили документацию коммуна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На ряде объектов профиль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обнаружили различные нарушения. В их числе – захлупление строительным и бытовым мусором, а также отсутствие огнебиозащиты стропильных деревян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кровли. Кроме того,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не ограничили доступ посторонних лиц к некоторым чердачным помещениям.

Наибольшее число нарушений выявлен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ак,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проверок в отношении 5 юридических и 4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возбудил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оизводства. Выдано 6 предписаний об устранении нарушений. Организации и должностные лица заплатят штрафы на общую сумму 500 тысяч рублей.

Такж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оизводства возбуждены в отношении управляющей компании из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Юридическое лицо выплатит штраф – 125 тысяч рублей, должностное – 25 тысяч.

На особый контроль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взяли работу провайдеров. Поставщикам интернет-услуг необходимо навести порядок с размещенным в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х цифров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Кабели и приборы, которые больше не используются, следует демонтировать.

## 84 семьи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переедут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 новостройки в 2022 году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прямой линии на телеканале «ОТВ-Сахалин» и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Жители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спросили: правда ли, что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и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не будут строить дома для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непригодного для проживания фонда.

– Это неверная информация. Жилищный вопрос ежедневно у нас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вой в России приступила к реализации новой программы расселения жилья, признанного аварийным после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На эти цели нашему региону федеральный центр выделяет 4,6 млрд рублей,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Смирных сдадут дом на 80 квартир. Еще два двухквартирных дома введут в селе Онор. Кроме того, в райцентре планируется нача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мов на улице Ленина.

Жители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обратились с просьбой – строить жилье для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не только в райцентрах, но и в селах. Многие хотят остаться в родных Огоньках, Таранае и Успенском.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метил, что по всему Анивскому району намечены десятки перспективных площадок для новостроек. Большая часть жилья будет возводиться в райцентре. Если бизнес выразит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застройка охватит и сельскую местность.

В этом году в Таранае сдали шесть двух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для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чн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мов на улицах Транспортная и Совхозная.

На прямую линию также обрат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Тымовского. Женщина поделилась, что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получила квартиру в новом доме, но качество застройки оставляет желать лучшего.

– Окна подтекают, входные двери не отрегулированы, приходится сильно хлопотать. Обращалась в КУМС и к строителям, но результата нет, – пожаловалась тымовчанка.

Губернатор поручил министру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ю Колеватых выехать на место и разобраться в ситуации. Отметим, чт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ет народный контроль. С этого года заведена традиция, когда участники област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проводят предварительную приемку новостроек. Будущие новоселы осматривают свои квартиры и высказывают замечания и пожелания подрядчику.

Жители Корсакова за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когда расселят бараки на улице Нагорной. По словам главы региона,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комфортные квартиры переедут жильцы домов №41а и 49б.

Напомним, в ближайшую пятилетку ключи от комфортных квартир по программе переселения получат почти 29 тысяч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포털 프로필도 없는 30세 사할린 워킹맘, 尹캠프 합류 이유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첫 주재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언론에는 27명의 선대위 추가 인선 명단이 공개됐다. 그 중 5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은 '스트류커바 디나(91년생): 국제 무역 컨설팅 업체 대표'라는 낯선 이름이 포함됐다.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프로필조차 검색되지 않는 낯선 외국인 이름을 가진 그가 어떻게 제1야당의 대선을 이끄는 공동선대위원장이 됐을까.

이름만 놓고 보면 역량 없는 외국인인 스트류커바 위원장은 검은 눈동자와 머리카락을 가졌다. 그도 그럴 것이 일제시대 러시아로 끌려간 뒤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된 노동자 부부가 그의 외조부모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인 아버지로 인해 서구적인 외모가 섞이긴 했지만 한반도에 뿌리를 둔 동포 3세대.

러시아에서는 흔히 고려인 3세로 불린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나 극동연방대학교에서 한국 경제학을 전공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뿌리에 관심을 가지고 선택하게 된 전공이었다. 그러던 그에게 2007년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적십자의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사업을 통해 스트류커바 위원장의 외조부모가 그 해 한국 땅을 밟았고, 그도 5년 후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다. 입국 뒤 연세대 국제대학원에서 한국정치경제학 석사 과정을 밟은 그는 지난해엔 아예 한국으로 귀화해 정식 한국인이 됐다. 직장에 다니기도 했던 그는 현재는 외국인 남편과 함께 무역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이다.

그런 그가 정치권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지난 8월이다. 당시 윤석열 후보 경선 캠프에서 청년특보를 맡았던 장예찬씨가 마련한 '상상 23'이라는 씽크탱크 세미나에 참석하면서였다. 장씨는 "당시 스트류커바 위원장은 아이를 보느라 온라인으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이런 모습이 워킹맘의 현실이라는 걸 윤 후보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다 지난 28일 열린 윤석열 캠프 청년위원회 발족 행사에 그가 다시 참석했고, 윤 후보는 참석한 위원 10명 중 그를 꼭 집어 "당당하게 우리나라에 자리 잡아서 활발히 사회 활동을 하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했다.

스트류커바 위원장의 발탁은 정치적으로 여러 의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대선 D-100,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및 청년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각자의 손가락으로 지문을 찍는 '공정 나무 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이 스트류커바 디나 공동선대위원장이자이다. [국회사진기자단]

가 있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입했던 필리핀 이주 여성 출신인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 이후 두 번째로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한 이주민 여성이다. 장예찬씨는 "스트류커바 위원장 영입은 그간 한국이 외교적으로 외면했던 사할린 강제 이주민을 보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워킹맘이기도 하다. 중년 남성 일색인 선대위에서 그가 목소리를 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청년위 행사에서 그는 "오늘(28일)도 아기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남편이 도와주고 있다"며 "워킹맘은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일을 쉴 수밖에 없어서 풀타임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결혼 뒤 육아 문제를 고려해 현재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스트류커바 위원장 임명에는 윤 후보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이렇다 할 공약조차 나오지 않은 선대위 단계에서는 인사가 곧 메시지"라며 "윤 후보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고서는 힘든 인사"라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스트류커바 위원장의 임명이 여의도식 문법에 맞지 않는 인사일 수 있으나 오히려 이것이 신선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줄타 동시'의 의미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 코이카, 우즈베키스탄 공공행정 역량강화 지원

## 우즈벡 정부 요청으로 지난 4년간 '공공부문 혁신 위한 국가행정아카데미 역량강화 사업' 진행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등 4개 기관과 함께 공무원 교육용 행정학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은 지난 11월 26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위치한 국가행정아카데미(APA) 대회의실에서 '공공행정 부문 시스템 발전을 위한 성과확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이카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4년간 정부 간 원조사업으로 진행한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국가행정아카데미 역량강화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속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공공행정제도 개선'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국가발전전략(2017-2021) 중 하나다.

컨퍼런스에는 우즈베키스탄 측에서 아드함 베케무로도브 국가행정아카데미 총장, 오타벡 카산노브 공무원개발청 부청장, 우미다 투흐타세바 반부패청 부청장, 포즐존 오타호노브 의회·입법문제연구소장을 비롯해 공공행정 분야 핵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박순진 코이카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장이 현장에 참석했고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 유엔 국제공무원위원회 위원인 김관석 연세대 교수, 한·우즈벡 의원 친선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 박용진 국회의원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우즈베키스탄 국가행정아카데미(APA)는 공무원 제도 개선 및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재교육, 석사과정)과 학술연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위해 1995년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해당한다. '국가행정아카데미(APA) 역량강화 사업'은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NHI), 한국행정연구원(KIPA), 서울대학교, CIC소프트주식회사 등 4개 기관이 협력해 2017년부터 2021년 4년간 총 315만불을 들여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체계 구축 및 전문성·혁신능력 제고를 위해 ▲APA 교원과 석사과정, 고위공무원 대상 연수(총 12회 통해 237명 교육) ▲APA 조직진단과 공무원 교육제도 컨설팅 ▲행정학 정책사례 교과서 개발, 공무원 교육 신규과정 개발, ▲스마트러닝 환경 구축을 위해 학사행정 프로그램과 이러닝 콘텐츠, 스마트러닝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 양국의 전문가가 공동 참여해 정부혁신, 전자정부, 갈등관리, 중앙정부 대중소통, 지방정부 대중소통, 해외직접투자, 지방정부 혁신 등 7개 사례가 포함된 공무원 교육용 행정학 교재가 발간되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이 공무원 교육 교재를 해외 전문가와 공동으로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기존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영되고 있던 인적자원관리(HRM) 및 인적자원개발(HRD) 부문 교재와 교사용 지침서도 우즈베키스탄 전문가와 공동으로 개발해,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공무원 교육을 위한 공식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신문)

# 이모저모

(2면의 계속)

## 사할린 아동 오케스트라, 관객들을 '동화 속 마법 세계'로

지난 11월 25일(목) 사할린 아동 심포니 오케스트라(교향악단)의 연주회가 사할린의 주요 무대인 체호브 극장 센터에서 열렸다. 사할린 아동 교향악단은 20여년 전 주 자원센터를 거점으로 창단되었다. 주 및 지방에서 온 어린 음악가들 90여명과 이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인 빅토리아 유흐마노와와 안 알렉세이가 체호브 센터 무대에 올랐다고 주 자원센터의 문화·예술 분야 교육 분과가 전했다.

연주회 프로그램 목록은 매우 다양하고, 다채로운 유형과 장르의 작품들을 포함해 문학적 세계 음악의 우수 대표작, 가무곡, 만화영화 삽입곡 중 '날아다니는 배', '마샤와 곰', '미녀와 야수', '핑크 팬더', '알라딘', '살탄왕국의 이야기 중 <왕벌의 비행>' 등 귀에 익숙한 멜로디들이 연주되었다.

11월 19일부터 시작된 연주회 기간에 어린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함께 무수한 연습 시간을 보내고 11월 23일에 '육차브리' 영화관 무대에서 사할린주 학생들을 위한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열었다.

## детский оркестр Сахалина погрузил зрителей в "Волшебный мир сказок"

Концерт Сахалинского детск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состоялся 25 ноября на главной островной сцене в театральном центре им. А.П. Чехова.

Сахалинский детски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создан на базе областного ресурсного центра более 20 лет назад. На сцену Чехов-центра вышли около 90 участников — юных музыкантов области и приезжих, а также их преподавател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бесценных дирижеров Виктории Юхмановой и Алексея Ана,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й ресурсный центр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Репертуар программы концерта очень разнообразный, включает произведения различных стилей и жанров, лучшие образцы мировой музыкальной литературы, эстрадной музыки, музыку из мультфильмов,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любимые многими "Летучий корабль", "Маша и медведь", "Красавица и чудовище", а также музыка из "Розовой пантеры", "Алладина", "Полет шмеля" из "Сказки о царе Салтане" и еще много узнаваемых мелодий.

Во время сессии,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ла с 19 ноября, с юными оркестрантами проводились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репетиционные занятия, а 23 ноября в кино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Октябрь" состоялся концерт оркестра для школь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사할린 주민들, 가장 좋은 휴식 방법 언급

사할린주 주민의 대다수(61%)가 가장 좋은, 단순한 휴식 방법으로 자연으로 놀러가는 것이라 답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최대 온라인 채움 hh.ru 중개 사이트가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 서비스의 전문가들은 사할린과 쿠릴 주민에게 있어 이상적인 휴식이 무엇인지를 밝힐 목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사할린 주민들은 해외나 다른 도시로 떠나는 것보다 야외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휴식을

선호하는 가운데 설문 응답자 중 61%가 이런 견해를 나타냈다. 사할린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휴식 2위로는 등산, 낚시, 버섯과 열매를 따러 숲으로 가는 것이다. 한편, 같은 수치로 설문 응답자의 32%가 독서라고 답했다. 주민의 3분의 1인 29%는 친구들과 사교적 만남을 최고의 휴식으로 답했고, 30%는 바닷가에서 휴식을 꼽았다. 사할린 주민의 4분의 1인 25%는 이상적인 휴식 방법으로 스포츠를 선호했고, 설문 응답자 중 가장 적은 18%가 다차(텃밭 가꾸는 개인집)에 가는 것을 선택했다.

## Сахалинцы назвали лучший вариант отдыха

Большинство жителей (61%)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звали поездку на природу лучшим и простым вариантом отдыха. Таковы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крупнейшей российской платформы онлайн-рекрутинга hh.ru.

Специалисты сервиса провели онлайн-опрос с целью выяснить, что такое идеальный отдых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Как показало исследование, островитяне предпочитают отдых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выезду за границу или в другие города. Такое мнение выразил 61% респондентов.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у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ход, рыбалка или поездки в лес по грибы и ягоды. Кстати, столько же соискателей (32%) выбрали чтение.

Треть жителей (29%) области указали, что лучший отдых — вечеринки с друзьями. Еще 30% опрошенных выбрали пляжный отдых. Четверть сахалинцев (25%) посчитала идеальным вариантом отдыха спорт. Реже всего (18%) участники опроса выбирали поездку на дачу.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어머니들을 위한 흥겹고 따뜻한 자리 마련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머니 날을 기념한다. 어머니 날은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 만든 날이다. 러시아에서 이날은 11월 마지막 일요일에 기념한다. 이날을 앞두고 지난 27일(토) 사할린주 한인여성회(회장 김 타치아나)의 주최로 한인문화센터에서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날 여성회는 1세 어르신 할머니 53명을 모신 가운데 여성회가 운영하는 <60+>클럽 회원 50명을 초대하고 만남의 명절 자리를 만들었다. 행사장을 찾아온 손님들은 이날 따뜻한 대접을 받았다. 주 한인여성회 측은 참석자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맛있는 밥상을 차리며 축하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축사를 한 김 타치아나 회장은 어머니의 배려와 사랑에 대한 말을 아끼지 않고 모든 어머니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주 여성회 회원으로 구성된 중창단은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꽃마차' 노래를 선사하고, 1세 어르신들에게 큰절을 올렸다.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낸 어르신들과 2세대는 주최 측에 감사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행사장에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광기동 소장 내외도 함께 자리했다.

(배순신 기자)  
(사진: 주 여성회 제공)



###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안내》

본국에서 2020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는 2022.02.23.(수)~2022.02.28(월)간 실시 예정이며 재외투표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기간은 2021.10.10 ~ 2022.01.08.입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 **출장소를 방문하여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작성, 제출** 또는 ▲ **인터넷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접속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신청 절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접속 → '재외선거신고신청' 클릭 → 성명·여권번호·주소 등을 입력, 신청 완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사할린 동포 여러분의 적극적인 국외부재자 신청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Реклама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http://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kh.com](http://bilet.sakh.com)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